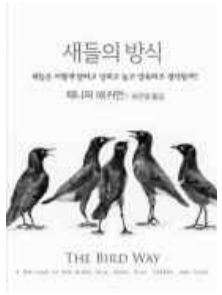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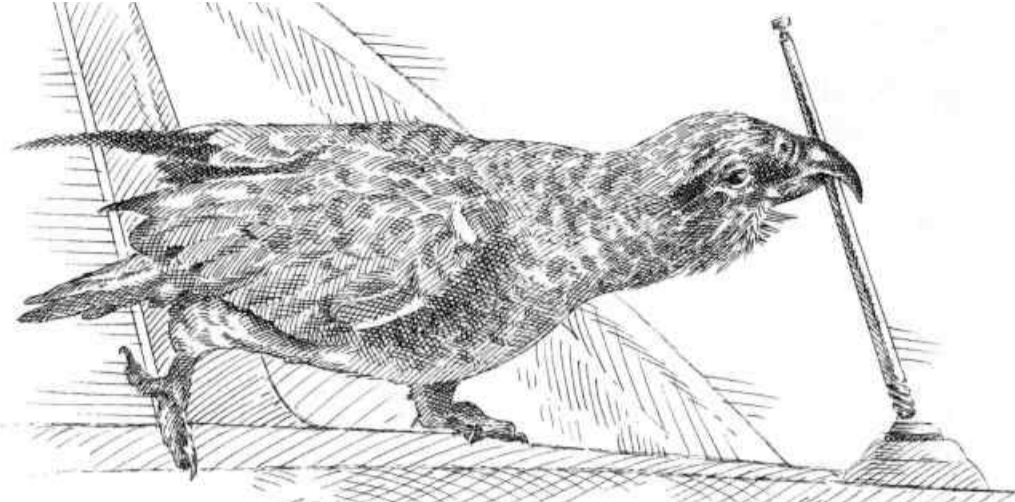
# 기만·협업에 사투리...새들의 놀라운 지능

## 새들의 방식

제니퍼 애커먼 지음, 조은영 옮김



청둥오리 수컷들의 성행위는 극악무도하다고 한다. 원하지 않는 암오리에게 교미를 강요하거나 심한 폭력을 가한다. 이 과정에서 암컷이 죽는 일도 있다. 아메리칸원앙의 성행위도 유별나다. 수십 마리 수컷이 한 마리 암컷에게 교미를 시도한다.



새들 중에도 유별나게 장난이 심해 혼자서 놀이를 즐기는 새도 있다.

〈까지 제공〉

다른 조류의 사랑 행위로 이채롭다. 코뿔바다오리는 섹스를 기대하며 서로 부리를 문지른다. 피셔모란앵무의 애정 표현은 달달하다. 이들 앵무새들은 암수가 서로의 땀에 파고들며 깃털을 다듬고 부리를 씹으며 입맞춤을 한다.

새는 우리에게 친숙하지만, 그러나 새에 관한 상식은 지극히 단편적이다. 새는 수컷만이 화려한 깃털을 뽐낸다고 알려져 있지만 암컷도 화려한 색깔을 자랑한다. 또한 새들도 다른 새를 속이며 남의 노래를 흉내 내기도 하는 등 지적 능력도 만만치 않다. 길모스만류나 다채로운 새들의 세계를 집약한 '새들의 방식'은 새에 관한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20개국의 언어로 번역된 '새들의 천재성'을 비롯해서 모두 8권의 책을 펴낸 제니퍼 애커먼이 저자로, 그는 30년 넘게 생물학 이야기를 써오고 있다. '새들은 어떻게 말하고 일하고 놀고 양육하고 생각할까?'라는 부제는 새들의 행동과 직결된다. 저자는 한마디로 새에게도 놀라운 지능이 있다고 단언한다. 여기에는 "기만, 술수, 납치, 유아살해는 물론이고 종들 사이의 기발한 의사소통, 협업, 이타주의, 놀이" 등 인간만이 있다고 여겼던 능력을 포괄한다.

책에는 다양한 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말하기'는 의사소통이 주제로, 새들이 노래하는 이유를 들여다본다. 야생동물 음향 기록가인 앤드루 스키어치는 새벽 합창은 관계를 조율하고 확인하는 집단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짝이나 가족, 이웃과 장소와 소속을 재확인하는 행위라는 것이다.

명금류의 발생은 지역마다 다르고 심지어 인간처럼 '사투리'도 있다. 사투리를 처음 인지한 조류학자 루이스 밥티스타는 노래만 듣고도 새와 부모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정확히 집어냈다. 또한 과거에는 새의 가정 범위가 인간보다 좁다고 알려졌지만 붉은머리오목눈이나 검은자코맹벌새는 인간의 청력을 초월하는 초음파 영역의 소리를 낸다고 알려졌다.

새들도 먹거리를 찾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먹이를 찾아서 땅을 파거나 맛없는 부분을 버린다. 특별히 제작한 도구로 먹이를 은신처에서 꺼내기도 한다. 바보파카치는 먹잇감을 잡거나 절조망에 쫓아둔다. 쥐나 개구리, 몸집이 큰 동물을 마치 폭력

배처럼 살해하는 잔인성도 있다.

새들의 색깔(色覺)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선다. 인간의 망막에는 파랑, 초록, 빨강의 세 색깔을 수용하는 원뿔세포가 있지만 새들은 추가로 자외선 파장을 감지하는 원뿔세포가 있다. 그 덕에 새들은 풀과 나뭇잎이 무성한 숲속에 위장된 먹잇감을 포착하고 두더지가 남긴 소변 흔적도 구분한다.

아울러 새들도 나름의 방식으로 놀 줄 안다. 큰까마귀와 케이앵무새는 가장 장난이 많은 동물로 알려져 있다. 잔가지를 들고 하늘을 날다가 떨어뜨린 다음 잡거나, 한 발로 매달린 채 다른 발에 장난감이나 먹이를 들고 부리에서 발로 옮기기도 한다.

저자가 보는 새들은 '인습 타파자이자 규칙위반자'이다. 달리 말하면 새들은 인간이 하나의 틀 안에서 설명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새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채롭다.

〈까지·2만원〉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 새로 나온 책

▲**깨어있음**=그리스도교와 불교의 지혜를 하나로 묶는 데 관심을 보여 온 브라이언 피어스 신부의 책이다. 저자는 14세기 독일의 영성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 신부와 현대를 사는 틱날타 스님을 불러 대화를 시도한다. 그는 불교의 마음챙김 수행이 그리스도교의 영성수련과 만날 때 얻었던 경험을 들려주며, 종교 간 대화가 자신을 보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다고 전한다. <불광출판사·2만2000원〉

▲**마요르카의 연인**=변호사, 국회의원 출신이자 현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책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기남 작가의 두 번째 장편소설. 해군장교와 피아니스트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로 진해역, 흑백다방, 초계구축함, 마요르카의 풍경 등 소설의 핵심을 포착해서 그대로 녹여낸 해군사관후보생대(OCS) 출신 김석철 화백의 삽화가 감동을 배가시킨다. <북스토리·1만5000원〉

▲**우당 이회영 평전**=2011년에 출간됐다가 절판된 '이회영 평전: 항일무장투쟁의 전위, 자유정신의 아나키스트'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하고 사진 자료를 교체해서 펴낸 개정판이다.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은 타락한 시대, 강권주의 시대에 치열하게 저항하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다 산화한 이회영의 이야기를 오롯이 들려준다. <두레·2만원〉



▲**당신이 몰랐던 K**=소련 레닌그라드에 태어나 2001년 귀화해 한국인이 된 박노자(블라디미르 티호노프)가 경계인의 시선으로 한국이 가진 모순과 부조리를 조명한 책. 총 6장으로 구성됐으며, 저자는 오늘날의 한국을 '불행한 선진국'으로 만든 근본적 원인은 '타자를 향한 관심과 존중, 그리고 나와 남을 이어주는 소속감의 고갈'에 있다고 전한다. <한겨레출판사·1만5000원〉

## 어린이·청소년 책



▲**나도 탈레 콩콩이**=더 높이 뛰고 싶고, 마음껏 모험하고 싶은 어린이의 마음을 담은 이정모 작가의 책. 토끼가 풀밭에서 발견한 콩콩이를 타고 신나게 놀기 시작한다. 여우가 재미있겠다며 콩콩이에 올라타자 콩콩이는 하늘 높이 뛰어오른다. 이어 원숭이, 사자, 곰, 청설모가 각각 다른 이유로 콩콩이에 올라타고 이들은 더 멀리 날아오르는 모험을 하게 된다. <모든요일그림책·1만3000원〉

▲**웨인스콧 족제비**=사랑에 빠진 족제비의 용감한 행동과 서로 다른 동물 사이의 사랑을 다룬 판타지. 숲 속 세계에서 떨어져 혼자 사는 족제비 배글리 브라운은 혼자 살지만 다른 동물의 도움을 받

며 생각만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인간의 삶을 동물 세계에 비추어 세이틀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혼자이지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일깨워준다. <누가 뭐래도 나는 나-일본의 심리상담사 사사다 유키코가 그동안 만나 온 다양한 고민을 가진 10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인생 힌트 50가지를 담았다. 인간관계, 생활, 태도 등이 일러스트와 함께 실려 있다. 또 10대들이 딱딱뜨릴 만한 상황들, 고민할만한 다양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인생 힌트를 기억하기 쉽게 스티커로 제작했다. <이야기공간·1만5500원〉

# 지상의 아름다운 책과 그 책이 맺어준 따뜻한 우정 이야기

## 운명, 책을 탐하다

윤길수 지음



1960년대 말 가까머리 중학생 윤길수는 동네 단골 헌책방에서 용돈을 다 털어넣어 '현대조선문학전집' 1권과 '현대시집' 1권을 구입한다. 시가집에 실린 시 중에서 특히 정지용과 김기림의 시가 마음에 와 닿았고, 토속적인 백석의 시편들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그에게 고향을 떠올리게 했다. 이 두권의 책은 그를 문학의 길로 이끌어주었고 책을 수집하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의 탐서 인생은 수십년간 이어졌고, 지난 2011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은 바로 그가 소장하고 있던 책이었다. 장서가 윤길수씨가 펴낸 '운명, 책을 탐하다-한 장서

가의 탐서 생활 50년의 기록'은 지상의 아름다운 책과 그 책이 맺어준 따뜻한 우정의 이야기다.

저자는 30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년퇴직 후 지난 2011년 그동안 수집한 장서 1만4636권을 정리해 '윤길수책:한국근현대 도서 목록(1895-2010)'을 펴냈다. 이 책은 개인 장서목록이기도 하지만 개화기 이후 한국근현대도서 100년의 역사를 처음으로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책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문학사'에 연재한 글들중 책과 사람, 그리고 한국문학 작가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다. 또 장서가로서 책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겪은 에피소드와 평소 책과 문학에 대한 생각도 담아냈다.

책은 1부 '내 인생을 바꾼 책 이야기', 2부 '내가 아끼는 한국문학 작가와 그 책들'로 구성돼 있다. 최초의 양장본으로 거론되는 유길준의 '서유견문'(1895), 한용운의 '님의 침묵'(1926), 이광수의 '무정'(1925) 등에 얽힌 이야기 등이 눈길을 끈다.

또 최초로 문화재가 된 시집 '진달래꽃'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되기까지 겪었던 우여곡절도 기록하고 있으며 "부친의 유품이라고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늘 허전했다"는 소월의 아들이 '진달래꽃' 유일본을 만져보며 눈물 흘리던 모습을 기억하는 글도 담겼다.

그밖에 사랑하는 백석의 시집을 비롯해 여러 작가들의 시조집과 동요집, 희곡본과 한장본, 1930년대 문학 동인지, 금서 등 책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아름다운 책과의 만남 못지않게 아름다운 사람들과의 인연도 책 속에 빼곡하다. 그의 장서 수집의 시작이 된 경문서림 고(故) 송해룡 선생을 비롯해 통문관, 문우서림, 경안서림 등 오래된 서점 주인들과의 추억을 세세히 기록한 점도 인상적이다.

책을 보는 또 하나의 재미는 수많은 도판을 통해 책 표지 뿐 아니라 삽화 등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책의 특징을 잘 담아낸 소박하고 아름다운 표지들은 지금 책들과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공리·2만80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피쉬데이(주)는 2015년에 설립되었으며, 연매출 100억원, 사원수 20여명 규모의 평균나이가 33.6세, 20~30대의 젊은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농수산물 유통전문 업체입니다. 광주/전라남북도 전역에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피쉬데이 직영점을 포함 백화점, 하이퍼마켓 입점운영과 자사 홈페이지, 온라인마켓 등 온오프라인을 겸비한 다양한 유통채널을 직접 운영하며 탄탄한 영업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 VOYAGE TO GROWTH, WITH FISHDAY

피쉬데이와 함께 성장해 가는 항해

# FISHDAY 피쉬데이

# 피쉬데이 정규직 채용공고

**모집분야**

모집분야	웹디자인	매장 영업 (수산 판매/관리)	물류
<b>직무내용</b>	포토샵 / 일러스트 능숙자 상품 판매를 위한 상세페이지 제작 SNS매체를 활용한 홍보 및 관리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근무자 1대1 코칭으로 초보자분도 어려움 없이 간단한 생산순절부터 회, 초밥까지 배울수 있는 기회	수산물 유통 (냉동참치 납품/배송) 1톤 냉동참치 배송 수산물을 광주/전남권 매장별로 배송
<b>근무시간</b>	주5일 (월~금) 09:00~18:00	주6일 (격주휴무) 09:30~19:30	주6일 (월~토) 04:30~13:00
<b>우대사항</b>	관련 자격증, 경력 1년 이상	차량소지자 우대 (전남권 근무시 유류비 지원)	자동차 운전면허(필수)

**주요복지**

업무 숙련도에 맞춰 빠른 진급과 급여 인상 보장.  
명절 상여금 (추석, 설/연2회), 하계휴가비 지원, 내일채움공제 가입, 생일상여금, 가정의달 선물 증정 등

**문의 연락처 | 1522-4268, 010-7628-9292**